

## 2015년까지 ‘축산물 HACCP 공급망(HACCP Food Chain)’ 구축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까지 ‘축산물 HACCP 공급망(HACCP Food Chain)’이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축산물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해 생산·공급하는 ‘축산물 HACCP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106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120여개 시·군에 HACCP축산물 생산기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국내생산 축산물의 40% 정도가 HACCP기법에 따라 생산·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협을 HACCP 일괄관리 지정 시범주체로 육성해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HACCP 적용시 농장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에 대한 ‘HACCP 일괄관리 지정제’를 도입하고 이들 축산물에 대해선 ‘모든 단계 HACCP 적용 축산물’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또 축산물 위해요소 예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가축사육·축산물가공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설정, 일상적으로 위해예방 활동을 실시토록 제도화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주된 식품 중의 하나인 우유류를 생산하는 유가공장에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의 HACCP 참여를 유도키 위해 HACCP 축산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 우수 판매점에 대해서 HACCP 평가와 위생감시를

통합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장이나 영세업체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한편 현행 HACCP이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알기 쉽고 보다 친근한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순화하고 HACCP 적용 축산물은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축산물 HACCP공급망이 구축되면 국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게 될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yusinya@afinews.co.kr) 2011.1.28

## 철새도래지 ‘조류인플루엔자’ 빨간불.. 야생 오리·갈매기서 발견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44건 검출 축산농가 철새 간접 접촉 차단해야

일부 철새 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1년 9월23일~11월20일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확보한 시료 2871개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8건을 포함해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44건을 검출했다고 지난 12월 6일 밝혔다. AI 바이러스는 총 16가지로 증상과 확산력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발견된 H5형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이지만, 조류독감이라고 불리는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하

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 과학원의 설명이다.

발생 지역은 천수만, 금강하구, 창원(주남저수지), 파주(곡릉천) 등으로 이곳으로 이동한 야생오리와 갈매기 등과 같은 철새에서 증상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천안 풍세천, 익산 만경강, 아산 곡교천, 청주 미호천 등 과거에 가금류 AI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검출됐다.

반면 경남을 제외한 경기 안산과 대구, 영암, 강릉, 고성 등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김종민 바이오안전연구팀장은 “검출결과를 지자체와 시·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및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상태”라며 “철새도래지, 농경지, 축사 주변에서 야생조류와 철새의 분변 등을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지현기자 2011.12.06

## 전남도, 축산농가에 친환경 사육 등 시·구제역 방역대책 당부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구제역과 고병원성AI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에 농장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판 및 통제띠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적극 차단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월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병원성AI 전염원으로 추정되는 철새가 해남 고천암, 순천만 등 도내 철새 도래지에서 본격적으로 월동하고 있고 지난 10월과 11월 경기, 충남, 전북지역의 야생조류에서 AI H5형 항체가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구제역 역시 전국적으로 상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을 소홀

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모든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과 통제띠를 설치해 외부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통제하고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농장 입구에 생석회를 발라 농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을 반드시 입구에서 소독 후 출입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육시설 내 사료를 방치하지 않고 축사 그물망을 설치해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사육하는 소와 돼지, 염소 등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가축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등 사육환경을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등 AI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도차원에서 도내 축산농가는 물론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해 매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가 및 축산관련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여부, 예방접종 여부 등 방역규정 이행상태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AI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긴장의 끈을 늦출 경우 악성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매일 농장을 소독하고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와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전화 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눔뉴스 이만영기자 2011.12.14

## 조류인플루엔자, 또 날아드나 주남저수지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 검출

주남저수지에서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최근 도내 대표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를 비롯해 충남 서산, 서천 등 전국 7개 지역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한다고 지난 12월 15일 밝혔다.

도축산진흥연구소는 도내 우포늪, 주남저수지, 낙동강하구 및 창원 봉암갯벌을 비롯해 사천 광포만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분변검사와 예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축산진흥연구소 관계자는 “종오리 및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항원 및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되는 이번 달에는 육용오리, 산란계, 토종닭,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닭·오리와 도축되는 닭과 오리까지 혈청검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 농가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가 사육 가금류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축사 소독은 물론 외출 후에도 반드시 몸을 소독 하고 축사 출입시는 농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방역복을 착용해야 한다.

가금사육농가에서는 매일 상태를 관찰해 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 AI 감염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축산진흥연구소(771-6651) 및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야생조류가 주 전염원이므로 토

종닭 등 방사사육 농가는 야생조류가 농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료통 주위를 청소해 잔반이 남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일보 광동민기자 2011.12.16

## F1 무분별 입식...장기불황 몰고오나 오리협, 지난 11월 도압마리수 842만수...사상최대치

경기불황으로 소비 크게 줄어...업체 재고물량 증가  
지난달 생체 오리값 5천700원/3kg...전년비 20% ↓

오리고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에 따르면 11월 중 오리 도압 마리수는 842만8천수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1월 도압 마리수로는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이다. 특히 오리고기 소비는 10월 이후부터 비수기로 접어들어 평년에는 사육마리수는 물론 도압수수도 감소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10월에 비해 11.1% 증가했다. 지난 2010년 11월에 비해서도 무려 45.5%가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사육마리수 증가와 함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도 오리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리업체들은 현재 수십만수에서 수백만수에 이르는 재고를 안고 있어 전체 재고물량은 1천200만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사육마리수가 증가하고 재고물량이 급증한 것은 연초 AI로 인한 종오리 살처분 조치로 종오리 부족현상이 생기면서 F1입식을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AI여파로 인해 2011년 3월까지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이후 입식한 F1에서 새끼 오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면서 생산량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1년 4월에 600만수를 넘어선 오리 도압량은 2011년 5월에 750만수, 6월에는 860만수, 7월에는 850만수를 기록했으며 9월에는 월 단위 생산량으로는 사상 최고인 890만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사육마리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났지만 오리고기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재고 증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반면에 오리업계에서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식당이나 TV홈쇼핑 등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오리업계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끼오리 가격은 물론 산지오리가격도 크게 하락했다.

생체 오리가격의 경우 2011년 11월5일 기준 5천700원대로 지난 2010년 11월에 비해 20%이상 하락했으며 새끼 오리가격 역시 700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2011.12.12

## 전북대 대학원생, 오리장염 특성 구명

전북대학교 수의대 대학원생이 국내에 보고된 바 없는 '오리장염 바이러스' 진단과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18일 전북대는 수의대 대학원생인 장상호(수의전염병·조류질병학 박사과정)씨가 최근 열린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 수의양계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 학술대회에서 '국내 오리장염 바이러스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구명 및 유래 분석'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발표된 논문은 오리장염 바이러스의 특성 구명을 통해 바이러스의 유래를 연구·분석한 것이다.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은 증상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증과 유사해 국가방역상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국가방역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씨는 "이 연구는 AI 감염증과 증상이 매우 유사한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오리농가에서의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발생피해를 조사하는 한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백신 도입 및 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권철암 기자 2011.12.18

## AI 행동지침 개정... 발병시 '경계' 단계 발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 즉시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등급인 '심각' 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계' 단계로 조정하도록 AI 긴급행동지침(SOP)이 개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9일 AI 발생 시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SOP을 개정 시행한

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AI가 발생하면 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경계를 발령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AI 발생 시 '주의' 단계가 발동됐었다.

방역당국은 또 AI가 발생하면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과 작업장에 대해 모든 가금류는 물론 사람과 차량의 출입도 일시 금지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을 조치하도록 했다. 동물의 분변 등에 직접 접촉을 통해 AI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이다. 적용범위와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전국 시·군 단위로 '가축 전염병 기동방역기구' 를 구성해 AI 발생 시 즉시 현장 투입키로 했다. 이동통제,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초기에 조치하도록 해 AI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살처분·매몰 처리요령 구체화, 거점 소독장소 선정·운영, 이동제한 지역내 사료 반출 허용 등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AI가 발생할 경우 개정 SOP에 따라 관계기관의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스 이인준기자 2011.12.19

## “한·중 FTA 발효 시 오리농가 소득 감소”

김정주 교수, '오리산업 중장기발전 방향' 워크숍서 제기

한·중 FTA 발효 시 사회적 순손익 감소에 따라

오리 사육 농가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 주최로 개최된 '오리산업 중장기발전 방향을 위한 워크숍'에서 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는 '국내 오리고기 유통 활성화 및 세계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주 교수는 "오리산업은 2003년 AI 발발로 인해 오리고기 소비가 80%까지 줄어 생산기반이 크게 붕괴되는 위기상황에서 자구노력을 통해 현재 명실상부한 '웰빙식품'으로 자리잡아가고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오리 산업의 당면 과제는 국내문제만이 아니라 WTO, DDA, FTA 등 국제간 수입문 개방 압력이며 그중에서도 중국의 위협은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오리 산업은 규모면에서 국내 오리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서 "중국의 오리 상시 사육수수는 국내 오리 산업보다 53배, 오리고기 생산량 23배, 오리 사육 농가수는 1200 배가 많아 대책 없는 FTA 체결시 오리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한·중 FTA 체결시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량(GDP)이 더 성장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성장된 GDP가 농업인들에게 배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국내에서 오리 산업이 식품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치사슬을 규명하고, 정직한 유통구조, 위생적이고 안심·안전한 식품 관리를 통해 오리고기가 소비자의 선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축산경제신문 옥미영기자 2011.12.15

예천, 오리가격 50% 뚝...“이제 못 키우겠다”

사육 적정생산비 반값도 안돼 관내 사육농가 ‘울상’

예천군 관내 오리 사육 농가들이 최근 공급과잉과 소비위축 여파에 따른 오리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겼다. 최근 예천군 감천면 J오리농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3만마리의 오리를 무상으로 나눠줬다.

오리값 폭락으로 오리 사육 적정생산비의 반값도 되지 않은 오리를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려워 선택한 방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00원대에 이르던 생체오리 3kg당 가격이 올 해에는 3500원대로 절반가량 폭락하면서 마리당 적정 생산비 5800원~6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10월부터 이어진 오리가격 하락이 좀체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예천관내 오리 사육농가들의 적자 폭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예천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오리사육농가는 12 농가에서 15만3천수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예천군 개포면에서 오리 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창모(44)씨는 “영세한 사육농가는 가격폭락이 지속될 경우 자식 같은 오리를 산채로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올해 종오리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과잉번식에 따른 오리 마리수가 늘어난 것이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육농가 김 모(47)씨는 “국내 오리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며 “직원들의 급여가 수개월씩 밀리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특히 예천군의 경우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관내 한우 및 돼지 사육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리 사육 농가마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지역 축산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일보 이상만기자 2011.12.19

## ‘시 비상’

### 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 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가상 방역훈련을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초동 대응능력을 높이고 최근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에 숙달하려는 훈련이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인근 오리농장에 AI 바이러스가 유입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AI 의심 가축 신고·확인, 발생·확산, 종식·재발방지책 등 전 과정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훈련한다. 시·도와 검역검사본부는 상황별 대응 조치 후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도상훈련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한 방역대책을 협의하고자 내년 1월 13일 평가대회를 연다.

농식품부가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철새도래지 배설물 7천240점을 검사한 결과 7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야생조류 713마리에서는 고병원성 AI항체 10건, 저병원성 AI바이러스 1건 나왔다.

가금류 사육농가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규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농식품부가 당부

했다.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에 신고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연합뉴스 최현석기자 2011.12.21

## 익산 오리 가공공장서 불.. 1억3천만원 피해

지난 2011년 12월 30일 오전 2시50분께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오리 가공공장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공장 내부 165여㎡를 태워 1억3천만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격자 정모(34)씨는 "오리를 납품하러 공장으로 들어가는 도중 공장에서 연기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현장을 정밀감식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방기자 2011.12.30

## 당진군 닭·오리 사육 마릿수 '충남도 1위'

당진군이 올해 1월1일 당진시로 승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의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 도내에서 천안시(53만 명), 아산시(24만 명), 서산시(15만 6000명) 다음으로 4번째로 많고, 재정규모는 5429억 원으로 천안시, 아산시 다음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단지 면적은 24.795㎢로 도내에서 가장 넓으며, 기업체 수도 838개로 천안시, 아산시 다

음으로 많다.

논 면적은 2만 1830ha로 전국에서 김제시(2만 3112ha) 다음으로 넓지만 쌀생산량은 1억 2727만 2000t으로 김제시(1억 2632만 9000t)보다 많으며, 단보 당 생산량은 583kg으로 서천군 598kg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도 닭, 오리 사육마릿수는 충남도 내 1위, 돼지사육은 도내 2위, 한우 4위, 육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면서 건축허가 건수도 734건으로 천안시(1161건)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아산시 634건), 민원서류 발급건수도 천안시, 아산시 다음으로 많다.

한편 내년 1월 1일 시로 승격하는 당진군은 지난 23일 인구가 15만 명을 돌파했다.

충청투데이 천기영기자 2011.12.30

## ‘부산역의 작은 기적’ 네티즌이 끌어낸 노숙인 급식 부산역 노숙인 스스로 하는 무료급식, 네티즌이 보낸 정성 덕에 작은 기적 이뤄

부산역 노숙인들이 뜻하지 않은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손수 지은 밥과 반찬을 동료 노숙인들과 나눠먹으며 훈훈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부산역 한쪽에 있는 실직노숙인조합. 한 쪽 구석에 마련된 큰 손단지에서 갖은 야채로 버무려진 오리고기가 펄펄 끓고 있다. 강원도에 사는 한 네티즌이 보내준 오리고기이다. 배식시간이 다가오자 어느새 하나둘씩 모여든 노숙인들이 요리에 팔을 걷어붙인다.



부산노숙인종합이호준위원장은 “재료를 쌓아놓고 먹으면 내일도 노숙인밖에 더하겠나?”며 “도움을 주신 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든든히 먹고 내일부터는 새 삶을 찾겠다는 의지로 먹을 만큼만 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해 전해진 사랑의 손길이 겨울바람에 지친 노숙인들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윽고 배식시간, 이날 모인 40여명의 노숙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지은 저녁밥을 모처럼 편안하게 먹었다. 노숙인 이

모(41)씨는 “매일 같이 보는 사람들과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으니 편안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아는데, 고마운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역 실직노숙인조합이 노숙인 스스로하는 무료급식을 시작한 지 2개월 여.

애초부터 단체나 기업의 기부를 거절했던 터라 처음에는 쌀과 반찬이 없어 말 그대로 마음뿐인 무료 급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노숙인들을 돕고 싶다는 답글이 줄을 이었고, 강원도와 전라도, 심지어 멀리 일본에서까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쌀은 물론 손수 재배한 감자와 고구마, 노숙인들의 건강을 걱정한 감기약에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몇 만원의 기금을 보내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 같은 도움으로 당초 일주일에 한 번도 하기 힘들었던 무료 급식이 이제는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등 주간 세번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조합측은 현재 한 주 동안 먹을 음식 재료가 마련될 경우 더 이상의 도움을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 중고 냉장고 두 대의 공간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내일은 스스로 일해서 손수 밥을 지어 먹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실직노숙인 조합 이호준 위원장은 “재료를 쌓아놓고 먹으면 내일도 노숙인밖에 더하겠나?”며 “도움을 주신 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든든히 먹고 내일부터는 새 삶을 찾겠다는 의지로 먹을 만큼만 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해 전해진 사랑의 손길이 겨울바람에 지친 노숙인들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부산CBS 박중석기자 2012.01.03

## 농식품부 올해 축산분야 예산

### 1조4천204억원

FTA 보완대책 3천42억 · 축발기금 908억 증액  
생산시설현대화자금 금리 3%서 1%로 하향조정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총 15조4천8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축산분야는 1조4천204억 원이다. 또 한·미 FTA 추가 보완 대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증액한 규모는 3천42억 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지원 금리를 3%에서 1%로 낮췄다. 특히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사업규모를 908억원 증액했으며, 특히 최근 수급불안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값의 가격 안정을 위한 암소도태자금(3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금은 현물출자 1조원을 추가하여 총 5조원(자본출자 3조원+현물출자 2조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2.01.04

## 혹한기 고병원성 시 발생 집중 '특별 주의 요망' 40년만의 혹한인 지난해 1월 고병원성 시 발생 집중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월 5일 혹한과 대설이 있었던 2011년 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가 집중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지는 한파에 관계기관 및 가금농장 등의 특별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과학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HPAI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금류 53건 중 40건, 야생조류 20건 중 13건이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월 30일 사이에 집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기간 발생량의 각각 75%와 65%가 집중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전국적인 대설 및 1973년 이래 40년 만의 강추위가 발생한 때로 환경과학원은 이때 발생한 혹한 및 대설의 영향으로 HPAI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야생조류의 경우 강추위로 인한 먹이부족과 스트레스가 HPAI 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환경과학원의 분석이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최근 기온이 급감하는 등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HP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 된다”며 관계기관 및 가금농장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축사 밀폐 등 축사환경관리로 HPAI 발생을 억제하고 가금과 야생조류 간에 HPAI 바이러스가 순환적으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학원은 “혹한과 대설에 따른 먹이부족으로

야생조류의 축사 인근 출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가금농장은 혹한이 지난 후 3주까지 HPAI 예방 및 혹한 영향의 최소화 등 HPAI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야생조류보호와 분산방지가 HPAI 관리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야생조류를 교란하는 활동을 줄이고 야생조류가 날아가는 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 서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아울러, 야생조류 분변이 널린 농경지와 수변을 피하며 HPAI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과학원은 관련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지자체 및 환경부 유역·지방 환경청 등에 제공하며 HPAI의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철새분포와 농가분포 등을 바탕으로 철새지도를 공동작성하는 등 전략적인 HPAI 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환경과학원은 “HPAI 발생 시 가축과 야생조류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및 가금농장 등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HPAI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2.01.04

